

# 한중경제포럼

제19-03호 2019년 7월 3일

## 중·미 무역분쟁: 진단과 전망

### 2019년 제3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중·미 무역분쟁: 진단과 전망
2. 일 시: 2019. 5. 30(목) 16:00~18:00
3. 발표자: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송홍(宋泓) 부소장

## 1. 중·미 경제무역 관계 및 세계화

### □ 중·미 경제무역 관계 발전

- 1970년대 이전 중·미간 무역 규모는 미미한 수준
  -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1972년까지 미국의 대중 경제제재로 인해 양국 간 무역은 거의 발생하지 않음.
-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미 양국은 상호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발전
  -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방중 이후 양국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무역이 점차 발전하기 시작
  - 중·미 무역관계는 ①1992년 이전까지 중국이 대미 무역 적자 기록(전형적인 선진국과 개도국 간 무역관계 형성)
  - ② 1993~2015년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구조로 전환됐으며, 흑자폭이 매년 빠르게 확대 ③ 2016년 이후 중국은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치고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변화
- 중국은 미국의 최대 상품무역 적자 대상국
  - 1993년 이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
  -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중국 비중이 1/3을 넘어 50%에 달한 경우도 있음.
- 중·미 양국 간 무역규모는 50년 만에 7,00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부상함.

그림 1. 중·미 무역의 발전과정(1980~1992년; 1992~2015년; 2016~2018년, 단위: 100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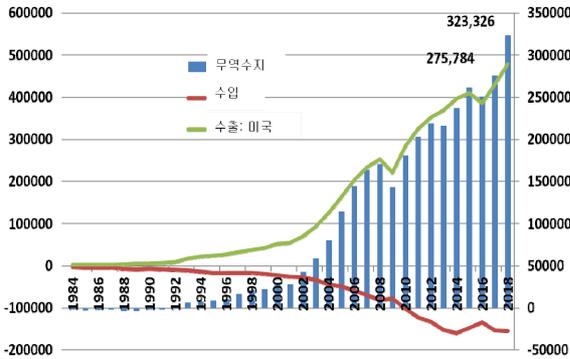


그림 2. 중·미 월간 무역추이(미국 통계, 1985~2019년, 단위: 100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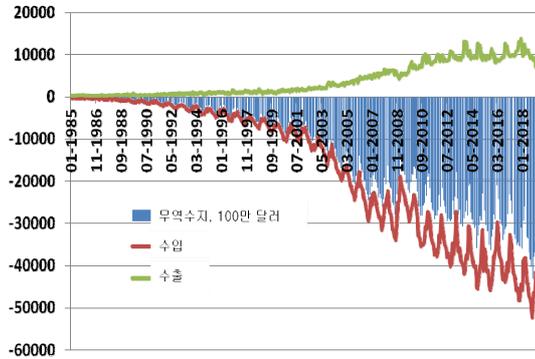


그림 3.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규모 추이 (월별,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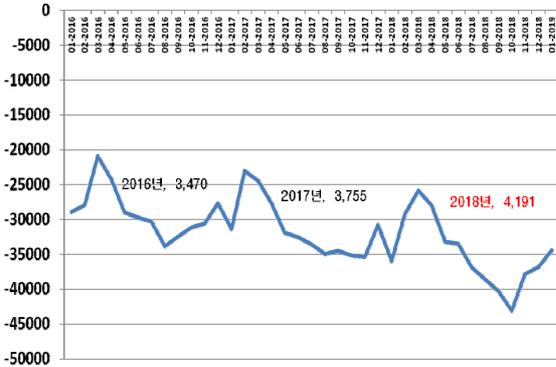


그림 4. 미국 상품무역의 대중 적자규모 및 총 적자규모 추이(1999~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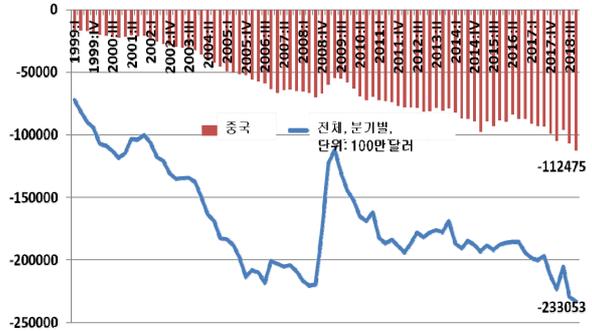


표 1.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단위: 십 억 달러

국가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무역총액
중국	2012	111	426	-315.1	536.1
	2016	116	463	-347.0	578.2
	2017	130	506	-375.2	636.0
	2018	124	541	-416.9	665.3
멕시코	2012	216	278	-61.7	493.5
	2016	230	294	-64.4	523.8
	2017	243	314	-71.0	557.0
	2018	267	347	-80.0	614.2
캐나다	2012	293	324	-31.6	617.0
	2016	267	278	-11.0	544.6
	2017	282	300	-17.6	582.4
	2018	301	322	-20.7	623.1
EU	2012	266	382	-116.5	647.9
	2016	270	416	-146.8	686.0
	2017	284	435	-151.4	718.4
	2018	321	493	-172.2	813.6

#### □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 구조

-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구소련의 패권 경쟁이 시작되면서 국제사회는 냉전 구조를 형성함.
- IMF, WB, GATT/WTO 등 서방세계 주도의 다자 경제구조가 형성됨.
- 1970년 이전은 서방 자본주의의 황금 성장기이며, 이후 독일과 일본이 부상함.

#### □ 1970년대 이후 나타난 새로운 세계화 현상

- 1970년대 석유위기, 베트남 전쟁 등의 영향으로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됨.
-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 레이건과 대처 수상의 자유주의 정책 등으로 세계화가 가속화됨.
- 1980년대 중반 플라자 합의가 체결되면서 엔화 등 수출 지향성 국가의 미달러에 대한 환율이 절상됨.
- 1990년 구소련 해체로 다수의 사회주의 국가가 개방된 시장경제에 참여하게 됨.

#### □ 미국의 새로운 전략

- 미달러의 패권 지위 확립
- 제조업의 대규모 아웃소싱과 해외이전
- 전 세계 범위에서의 시장화, 자유화, 사유화, 민주화 추진
- 새로운 정보기술혁명

#### □ 트리핀의 딜레마

-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 Dilemma):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Robert Triffin)이 저서 '황금과 미달러 위기: 자유태환의 미래(*Gold and the Dollar Crisis: The Future of Convertibility*, 1961)'에서 주장함.
  - 미달러는 황금과 연결되고, 기타 국가의 통화는 미달러와 연결됨.
  - 미달러가 국제 핵심통화 지위를 가지게 되고, 각국은 국제무역 발전을 위해 미달러를 결제/본원통화로 하면서 미국이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달러 공급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미국의 국제수지는 장기간 적자를 유지하게 됨.
  - 하지만 미달러의 국제 핵심통화 지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안정되어야 하므로 미국이 국제무역에서 장기 흑자구조를 유지해야 하는 모순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트리핀의 딜레마'로 부름.
- 당시의 전략
  - 마이클 허드슨(Michael Hudson)(1972, 2003): 초제국주의(Super imperialism) the origin and fundamentals of U.S. world dominance
  - 미국 T-bill(Treasury-bill standard)의 발행

그림 5. 미국 상품무역 수지(1948~2016년,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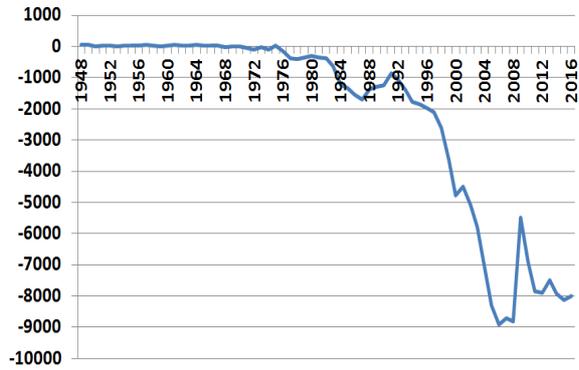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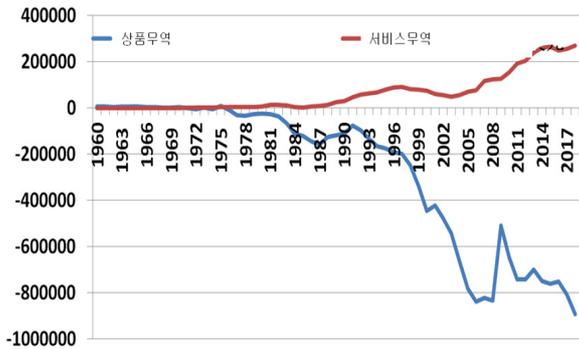


그림 6. 미국의 무역수지(1960~2018년, 단위: 100만 달러)



## 2. 중국 개혁개방 및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이후 중·미 관계 조정

### □ 배경

- 세계화 시대에 진입
- 1980년대 개도국의 채무위기: 중남미 국가 위주(1990년 인도의 구조전환 포함)
- 1990년대 초 동유럽의 격변과 경제구조 전환
- 1990년대의 각종 위기에도 중국은 유일하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개도국임.

### □ 중국의 부상과 중·미 세력 교체

- 지난 40년 중국은 연평균 9.5%의 GDP 성장률과 8.5%의 1인당 GDP 성장률 기록
  - 이에 따라 중국의 GDP는 7.5년마다 2배씩 성장, 1인당 소득은 8.5년마다 2배씩 증가
- 2009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대 경제체로 부상
- (무역 발전) 2003년과 2004년 중국은 아시아 최대 수입국과 수출국으로 부상, 2009년에 세계 최대 상품 수출국으로 부상, 2013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상품무역 수출입 국가로 부상
  - 1990년대부터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이 빠르게 증가
  - 중국의 기업 형태별 무역규모를 보면, 개혁개방 초기 국유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이후 외자기업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WTO 가입 이후에는 중국의 민영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외자유치) 1993년 최대 외자유치 개도국으로 부상, 현재 최대 해외투자국가 중 하나로 부상함.

그림 7. 중국 수출에서 기업 유형별 위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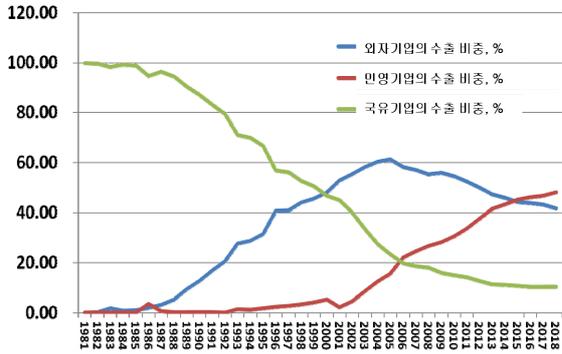


그림 8.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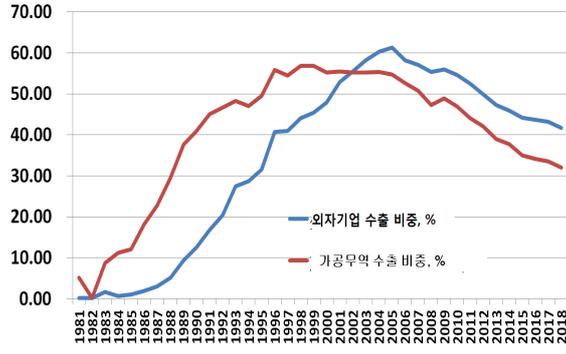


그림 9. 기업 유형별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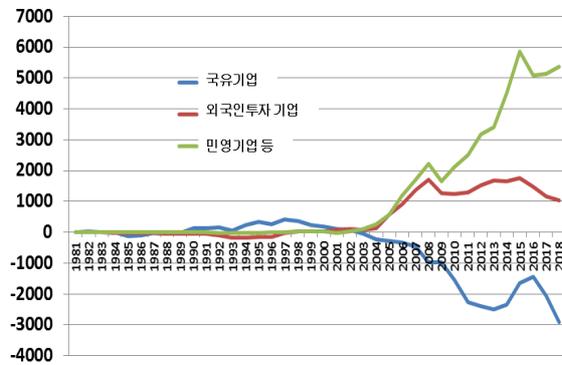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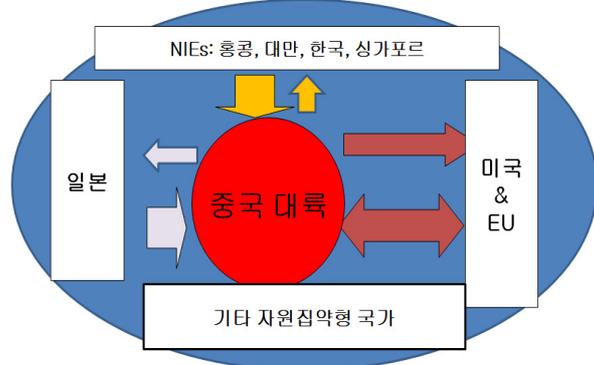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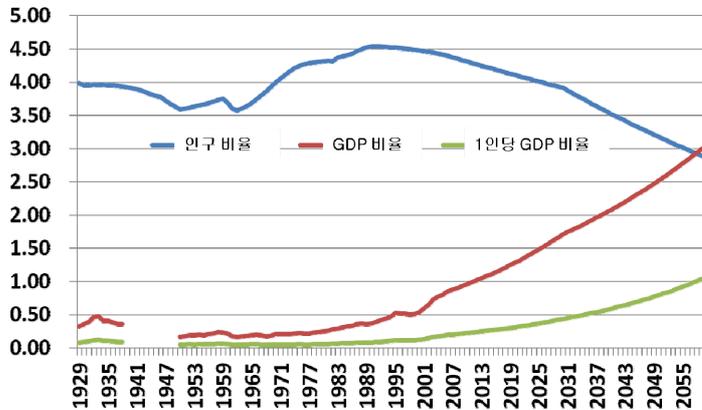
그림 10. 세계경제에서의 중국 위상



□ 중·미 관계의 새로운 변화

- (대국간 관계—세력 교체) 치열한 세력 교체 과정은 대부분 전쟁 형식을 통해 완성(\*투키디데스 함정)
- 중국의 1인당 GDP는 2060년 미국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0년 상대적인 힘이 근접할수록 양국 관계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흐름이 될 것이며, 세력 교체 대결은 점점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11. 중·미간 상대적 힘의 변화(GDP와 1인당 GDP, 1929~2060년)



## □ 중·미 관계의 삼중성

- 일반적 국가 관계: 최대 무역 상대국—중국과 미국은 상호 최대 무역 상대국
- 미국 주도의 세계화에 따른 양극화
  - 한쪽은 미국(대규모 무역적자)—‘하이엔드’에 위치: 혁신, 아웃소싱, 시장과 소비, 미달러어……
  - 다른 한쪽은 중국(거액 무역흑자)—‘로우엔드’에 위치: 생산, 제조, 미 국채 구입……
- 세계 패권의 경쟁자

## □ 중·미 무역관계 조정

- 삼중 관계 속에서의 조정
  - 정상적인 국가 간 조정
  - 세계경제 불균형 하에서의 조정
  - 세력 교체와 조정

## □ 트럼프 정부에서의 중·미 경제무역 관계

- 대중국 무역관계
  - 최대 무역 상대국
  - 최대 적자국
  - FTA 미체결, 미국의 동맹국도 아님
  - 잠재적인 대체자—경쟁자
- 원인: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 非시장주의
  - 정부 주도의 경제모델, 혹은 국가 자본주의
  - 정부 간섭, 국유기업의 역할
  - 시장 비개방, 강제적 기술이전 등
- 중국에 대한 조치
  - 중국의 지재권에 대한 조사—(301조) 2017년 8월 조사 시작, 2018년 3월 22일 결과 발표, 4월 3일 조치 실시
  - 1,000억 달러 규모의 대중국 무역적자 감소 직접 요구
  -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340억 달러(25%), 340억+160억 달러(25%), 340억+160억 달러(25%)+2,000억 달러(10%)
  - 중국 상품에 대해 보다 더 많은 반보조금, 반덤핑 조사 실시
- 과거와 같은 수입 증가 조치는 비효율적
  - 2017년 트럼프 중국 방문시, 2,900억 달러 규모 주문 계약
  -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제15조항 폐기와 승인
  - 중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심사 강화

□ 트럼프, 중국과의 관계 재조정

- 일반적 정상 국가간 무역관계 조정—미국과 동맹국 간의 관계조정과 유사
  - 미국과 동맹국 간 관계 조정 참고
- 세계화 과정에서 불균형한 구조에 대해 조정—동·서방 방식 채택: 외부요인에 집중, 내부 조정은 추진하지 않음.
- 중·미 무역분쟁은 RCEP이나 한중일 FTA를 통해서도 보완하기 어려워 중국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표 2. 중·미 무역분쟁의 영향(단위: %)**

500억 달러, 25%+2,000억 달러+10%							
국가	후생	GDP	제조업 일자리 창출	무역	무역 불균형	수출	수입
중국	-0.079	-0.344	-0.58	-1.567	-5.352	-1.894	-1.172
미국	0.073	-0.061	-0.619	-2.135	-3.86	-1.783	-2.385
500억 달러+2000억 달러, 25%							
국가	후생	GDP	제조업 일자리 창출	무역	무역 불균형	수출	수입
중국	-0.156	-0.657	-1.028	-2.465	-12.813	-3.359	-1.384
미국	0.125	-0.004	-0.652	-3.050	-8.800	-1.876	-3.883
전체 25%							
국가	후생	GDP	제조업 일자리 창출	무역	무역 불균형	수출	수입
중국	-0.261	-1.008	-1.619	-3.935	-19.264	-5.26	-2.334
미국	0.153	0.002	-1.009	-4.607	-12.996	-2.895	-5.823

**표 3. 지역통합 효과(단위: %)**

RCEP 효과								
국가	후생	GDP	제조업	비제조업	일자리 창출	무역	수출	수입
중국	0.622	0.282	3.031	-1.914	2.742	7.785	7.158	8.495
미국	-0.147	-0.725	-1.374	-0.549	-0.653	-0.997	-0.201	-1.54
한중일 FTA 효과								
국가	후생	GDP	제조업	비제조업	일자리 창출	무역	수출	수입
중국	0.231	0.132	1.493	-0.955	1.359	3.773	3.377	4.221
미국	-0.022	0.047	0.012	0.056	-0.035	-0.046	-0.048	-0.044
FTAAP 효과								
국가	후생	GDP	제조업	비제조업	일자리 창출	무역	수출	수입
중국	1.126	1.873	6.609	-1.908	4.649	13.852	13.263	14.52
미국	0.618	-0.384	6.158	-2.156	6.568	12.776	15.666	10.805

□ 세력 교체 과정에서의 조정

- 중국서방(중·미) 세력 교체 상황에서 냉정한 현실: ① 무너지지 않는 중국 ② 정상 궤도로 발전중인(在轨发展) 중국
- 중국서방 간의 관계조정
  - 영토, 주권 측면에서 조정과 기회
  - 정치체제 선택측면에서 조정과 기회
  - 경제체제 선택측면에서 조정과 기회
  - 무역체제와 모델측면에서 조정과 기회
  - 동맹국 체제측면에서 중·미 관계

### 3. 중·미 무역분쟁이 세계화와 가치사슬 재구축에 미치는 영향

□ 세계화에 대한 트럼프와 서방국가의 정책 조정

- 트럼프의 무역관: 자유, 공정, 대등한 무역
- NAFTA 재협상 논리
  - 무역균형
  - 아웃소싱 활동 반대
  - 환경과 노동 표준
- 한·미 FTA 재협상 논리
  - 기본적으로 대등한 무역규모 획득, 미국의 무역적자가 더 이상 확대되어서는 안 됨.
  - 미국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문제—한국의 자동차, 의약과 의료설비 시장 확대 등 요구
- 개방된 시장경제의 발전과 전통적으로 폐쇄된 시장경제의 발전

표 4. NAFTA 재협상의 주요내용

	분류	주요내용
N A F T A  현 대 화	지식재산권	① 지재권 보호 집행력이 가장 강력하고 전면적 ② 기업비밀(trade secret) 보호가 가장 강화 ③ 혁신(創新)가 보호—내국민 대우, 저작자 사후 70년, 혹은 최초 출판 후 75년간 저작권 보호 ④ 바이오 약품 및 파생상품에 대해 10년간 데이터 보호
	소액무역	- 소액무역 규모 확대 ① 캐나다는 무역거래에 대한 최소 과세액을 캐나다 달러 20달러에서 40달러로 인상 조정하고 150달러 미만인 상품 운송에 대해 면세 ② 멕시코는 최소 과세액을 미달러 50달러에서 100달러로 인상 조정하며, 117달러 미만인 상품 운송에 대해 면세 적용

	금융 서비스	① 미국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제한 완화 ② 최초로 현지 저장 데이터 이전 요구에 반대
	통화	거시정책과 환율 관련 내용을 추가(최초로 환율조작을 FTA 협정에 편입)
	노동	① 전체 협정 내용 본문에 편입, 동일한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적용 등 ② 노동가치 비중 요구하는 새로운 규칙-차량 가치의 40~45%는 시급 16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연소득 4만 6,080달러)로 부터 완성, 이는 미국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
완성품 무역협정	원산지 규칙과 원산지 절차	지역가치 비중을 높이는 새로운 규칙-자동차 제품 중 북미지역 비중 75% 달성 요구
		창의적인 새로운 노동가치 비중 규칙 제출, 차량 가치의 40~45%를 시급 16달러 노동자가 창출하도록 요구
		NAFTA1.0과 TPP 기준보다 더 엄격한 원산지 규칙과 집행 관리감독 메커니즘 확정-자동차 및 부품, 화학제품, 철강 제품, 유리와 광섬유 등
	시장진입	NAFTA1.0과 TPP 기준 초과, 완성품 무역 조항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
	방직품	공급사슬 강화를 통해 의류와 방직업 분야의 새로운 시장기회 제공-미국산 섬유, 실, 직물 사용 확대

□ 중·미 무역분쟁이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구축에 미치는 영향

※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 2014) : 21세기 자본론(*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프랑스, 파리 경제대학)

※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 2016) : 글로벌 불평등(*Global Inequality: A New Approach for the Age of Globalization*)(\*미국, 뉴욕시립대)

그림 12. 꼬끼리 곡선: P11, 밀라노비치(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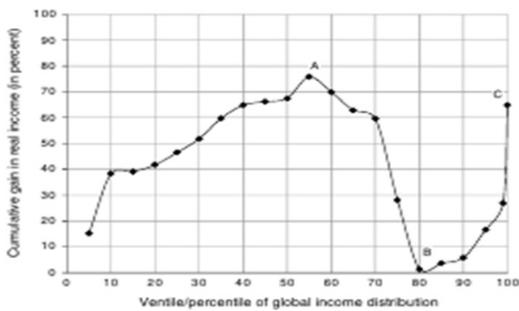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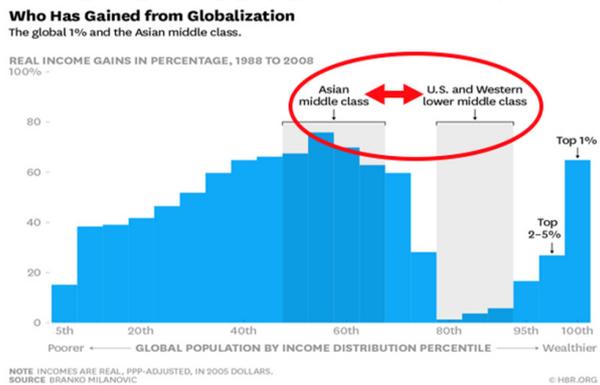


FIGURE 1.1. Relative gain in real per capita income by global income level, 1988-2008

그림 13.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1988~2008) 동·서양의 조정방식(밀라노비치 꼬끼리 곡선)



□ 조정: 가능 & 불가능

- 무역구조
-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
- 세력이전
  - 자국의 국내경제 정책 조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책과의 조율성 강화

- 전 세계의 시장경제 발전과 확장세 둔화
- 세력이전은 불안정속에서 추진

#### □ 중·미 무역분쟁이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미치는 영향

- 비교우위를 잃은 산업의 해외이전을 촉진 —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
-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을 촉진, 수입대체 강화
- 일시적 중단과 단기적 조정에 따른 고통 — 대표 사례: 화웨이
- 시장과 첨단 생산기지의 역할 강화

#### □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미래

- WTO 가입 후 양자 기반에서 다자 기반으로 전환 → WTO 규칙 기반
- 세계 최대 경제체 사이에서 발생한 무역분쟁은 WTO를 통해 조정하기 어려움 →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제15조항 및 최근 무역분쟁
- 상호 경쟁 시대, 상호 신뢰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 어려움.

#### □ 총결

- 대국인 중국의 일거수일투족은 전 세계, 특히 서방대국의 주목을 받기 마련 — '중소규모 국가'처럼 묵묵히 발전하기 어려움.
- 비교적 현명한 방법은 서방국가(미국)와의 소통과 조율을 적극 추진하여 갈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임.(비교적 성공적인 사례는 2005년 방직품 무역 특별보호 메커니즘 만기 후의 재협상 추진이며, 허심탄회하게 서로 마주보며(face to face)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패 사례는 WTO 가입 의정서 제15조항에 대한 처리 방식, 중국은 WTO 가입 후 15년의 과도기가 끝나는 2016년 12월 종료되는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 미국 등 서방국가는 각종 이유와 논증을 통해 반박, 결국 중·미 양국은 대립 심화 국면이 형성됨.
- 향후 중국과 서방국가,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상기 방법에 따라 조율·처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중·미 관계는 ① 6월말 G20 정상회의를 통해 협상 돌파구 마련 여부 ② 2020년 미국 대선 이전 타결 여부가 아주 중요하며 이 두 가지 기회를 놓치면 양국 관계는 아주 오랜 기간 경색된 상태가 이어질 것임.

## 질의응답(Q&A):

Q 1. 최근 언론에서는 중국이 ① 대미 희토류 수출 금지 ② 중국 보유 미국 채권 매각 ③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실시 등 3가지 대응카드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A 1. 개인적으로 볼 때 언급된 3가지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중·미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는 개방적인 방향에 따라 발전해 나가야 함. 특히 중·미 양국은 향후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함. 가장 이상적 조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중단하고 양국이 FTA를 체결하는 것임. FTA 체결 시 양국 모두 관세 양허가 가능하며, 중국은 미국보다 더 크게 양보할 수 있음. 혹은 기존의 양자투자협정(BIT)을 재개하여 양국 기업에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 이러한 협력 확대는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것임.

Q 2. 트럼프의 대 한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경제무역 관계 조정이 대등한 관계에 기반한 것이라면 중국은 미국 국내법에 근거한 일방적 요구라고 언급하셨음. 미국은 한국이나 캐나다 등 국가에 대해 이해관계 외에 추가 요구사항이 별로 없는 반면 중국에 대해 불공정한 시장, 정부 보조금, 인터넷 규제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함.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의 불공정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2.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를 요구함. 특히 정부 보조금 및 인터넷 규제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함. 사실 중·미 무역분쟁 발생 이전, 양국은 WTO 기준에 따라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음. 분쟁이 본격화된 지금도 WTO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정부 보조금 등 비시장 경제와 관련하여 WTO에 반보조금 등 관련 규칙이 있음. WTO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에 개선 요구를 제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함. 상대국에 개선 요구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301조 조사 등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WTO 규칙 개선을 통해 요구할 수 있음.

Q 3. 중·미 무역분쟁 원인 중 패권경쟁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이것을 '문명충돌론'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무역분쟁에서 기술냉전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결책은 있는지 궁금함.

A 3. 중·미 양국은 무역뿐만 아니라 기타 분야에서도 관계 조정 중임. 예를 들어 유학생 등 인적교류와 문화교류에서 변화가 생김. 하버드 대학교 모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거 500년의 경험에서 패권경쟁 국가는 전쟁을 통해 승부를 겨루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전쟁을 통한 패권쟁탈은 핵무기가 생기기 전에 발생한 것임. 현재 핵무기 보유 상황에서 양국 간 패권경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는 매우 무책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양국 간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 세계에 치명적인 충격을 가져다줄 것이므로 실제 가능성은 아주 작다고 생각함. 특히 핵무기 시대 양국 간 패권경쟁은 기타 국가와 지역, 나아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함. 중국은 기타 국가와의 협력을 희망하며, 특히 타국과 공동으로 세계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임.

중국은 중·미간 갈등이 무역에서 기술 분야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 하지만 미국정부는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첨단기술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려고 함.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중국은 보복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는 주권국가로써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함. 하지만 중국은 무역 분쟁이 기술 분야로 전면 확대되면서 미국과 전면적인 대립국면이 형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 이러한 갈등은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전 세계 기술의 발전을 억제할 것임.

Q 4. 미국은 중국의 농업보조금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WTO 규정에 따라 농산물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만 중국은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이 WTO 기준을 초과했음을 지적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WTO 규정에 근거하여 국제무역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언급하셨는데 중국정부는 농업보조금을 WTO 개도국 수준으로 조정할 것인가?

A 4. 미국은 WTO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또한 소송이라는 정당한 분쟁해결 과정을 통해 무역분쟁을 해소할 수 있음. WTO는 농산물에 대한 개도국의 보조금을 8% 내외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 쌀 포함 기타 농산물에 대한 WTO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면 기타 국가는 중국에 대해 소송할 수 있음. 중국이 패소한다면 WTO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임. 지난 10여 년 간 중국은 WTO 소송 메커니즘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였음.

Q 5. 중·미 협상 결렬에 대해 국내외 언론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산업 보조금, 국유기업 보호, 불공정 무역, 환율 결정 메커니즘 투명화 등 개선 요구를 하였으며, 중국이 이를 법제화하고 이행과정에서 미국도 검증에 참여하며 이러한 협상결과를 대외 공개하도록 요구하였다고 보도함.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알려짐.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함. 6월 말 G20 회의에서 합의를 이루려면 지금 상황에서 서로 조정하고 양보해야 할 것임. 앞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할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중국은 미국의 어떤 양보를 가장 원하는가?

A 5. 미국은 중·미 협상의 결렬이 중국 때문으로 생각함. 특히 미국은 국내법에 기반한 301조 조사를 통해 중국은 A, B, C 등 여러 가지 불공정한 행위로 미국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중국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님. 중국은 미국이 국내법에 따라 개선 요구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음. 그밖에 미국이 제기한 산업 보조금, 기술이전, 환율 문제, 국유기업 문제 등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함. 또한 이러한 문제는 WTO 등 다자 틀에서 조정 가능함. 다자협상 틀이 마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양국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해야 하며 일방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됨. 301조 조사는 일방적인 요구로 볼 수 있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국은 FTA 등 평등에 기반한 틀에 따라 협상할 수 있음. 국유기업 등 문제는 투자협정을 통해 해결 가능함. 301조 조사를 통해서도 양국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중·미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되려면 301조 조사는 일방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협상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즉 301조 조사는 양국 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분쟁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를 견지한다면, 양국 사이에는 해결법이 없다고 생각함. 개인적으로 볼 때 미국이 301조 조사를 중단하고 양국이 FTA나 BIT 등 새로운 평등한 협상 메커니즘을 빠르게 구축해야 함.